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말씀 충만, 피차 권면, 찬양과 감사

[골 3:16-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말씀들을 다 포함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은 네 권의 복음서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은 사도들의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속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 속에, 즉 너희 생각과 사상 속에’라는 뜻이다. 목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로 충만해져야 한다.

요한복음 15:7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딤후 3:16)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씀들이 없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사도들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다. 시편 1:2는,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말씀

을 종일 묵상하며 새벽 전에 바라고 묵상한다고 말했다(127, 97, 147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17:11-12에 보면,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다. 시편 119:98-100,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남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잠언 12:18,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는 성경말씀의 충만함과 지혜를 얻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한 중요한 요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1, 14,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3:13,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는 구절은 원문에서 “모든 지혜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KJV, NASB).

본문은 찬송을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한다고 보인다. 찬송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은 얼른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예언적 노래를 기억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구약의 시편들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다.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고, ‘찬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들을, 또 ‘영적인 노래들’은 기타 회개와 간증과 권면의 내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찬송가의 노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내용들뿐 아니라, 또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믿음에 유익을 주는 내용들이다.

또 우리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뿐 아니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 5:13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 라고 말하였다.

‘마음에’라는 원어는 ‘마음으로’라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목소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함을 보인다. 참된 찬송은 마음의 찬송이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지 못한다.

‘감사함으로’라는 원어는 ‘은혜로’(KJV) 혹은 ‘감사함으로’(NASB, NIV)라는 뜻이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관한 것이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찬송은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시 22:3). 시편은 우리가 ‘새 노래’ 곧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교훈하며(시 96, 98편)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시 150:6). 히브리서 13:15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교훈한다.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의 육신적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시 96:9)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빌 1:10)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

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도 찬송도 올리며 선한 봉사의 일도 행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와 생명이시며 기쁨과 힘이 되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들이 서로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과 격려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믿음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며 감사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세 천사들의 외침

[계 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때때로 천사를 사용하신다(계 1:1; 8:2; 10:1; 16:1).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함을 나타낸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다. 그 효력은 영원하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소식이다. 그것은 언제나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소식이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지와 바다와 샘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외쳤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매우 근본적인 진리들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

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잠 1:7; 9:10).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도 가능하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야 할 사람의 본래의 위치이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다른 한 천사 곧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들었다. 그 외침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 반복한 것은 그 무너짐의 확실함을 나타낸다.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이 바벨론은 17:5, 18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요 그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했고, 19:3, 10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 부요함을 얻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고, 16:19에서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세 갈래로 무너질 큰 성이라고 말했다.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보고(헝스텐퍼그),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본다(헨드릭슨, 박운선).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고(매튜 풀, 벵겔, 알포드, 반즈),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말세에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포셋, 렌스키, 비더울프). 이 마지막 두 견해 중 하나가 적절해 보인다. 장차 배교한 기독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짐승을 탄 음녀(17:3)인 이 바벨론은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속화된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며 그것은 아마 로마 천주교회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었다. 여기의 ‘음행’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질 것이다. 배교한 교회는 음행의 풍조를 퍼뜨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또 이단들을 포용하고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물질적 부요와 육신적 향락을 조장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이다.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옛날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였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과 같았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체인 WCC(세계교회협의회)는 또다시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계적인 배교한 교회들의 중심에 또다시 로마의 교황이 서게 되리라고 보며, 또다시 로마 교황청이 세계의 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배교한 교회는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다.

[9-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 곧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들었다. 그것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선언이다. 배교한 교회의 교인들 곧 신앙의 변절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의 장소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밤낮 쉬를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미래의 사실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오직 인내가 필요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義)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의로운 행위로 그 구원을 증거해야 한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된다.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와 싸우며 모든 죄를 떠나야 한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참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보수 신앙이다. 보수 신앙이 바른 신앙이며,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영원한 복음, 곧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는 잣대가 된다.

둘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성경적 교훈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교훈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교훈 안에서 양육되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운동을 배격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바른 믿음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한다. 또 우리는 돈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유다 백성의 구원

[속 14:1-3]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종에서 니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본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 위기의 때, 그 절망적 상황의 때, 하나님께서는 나가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도우시며 그 열국들을 치실 것이다.

[4-7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 . .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 . .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 빛을 내는 것들이 떠날 것이

라. 여호와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이다.

‘그 날’은 하나님의 열국 심판의 날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다. 그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 날에 빛이 없을 것이며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재림의 주께서 빛으로 오실 것이다.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 성에서 솟아날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 운동, 생명 운동을 가리키며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될 것을 보인다(겔 47장; 눅 24:47). 그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 사시사철 중단됨 없이 전파될 것이다.

[9-11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 . .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안전히 서리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신약교회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건지셨고 또 늘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고 그 앞에 신실한 것이 승리의 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신다.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받은 영생은 복음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영생의 생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시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왕권을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리이다.” 천국에서도 현세에서도 그러하다(롬 14:17; 요 14:27; 살후 3:16).